

1. 자화상

애비는 종이였다.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.
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.
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.....
흙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
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
갑오년(甲午年)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
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
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.

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(八割)이 바람이다.
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.
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(罪人)을 읽고 가고
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(天痴)를 읽고 가나
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.

찬란히 티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
이마 위에 얹힌 시(詩)의 이슬에는
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
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
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.

서정주

2.

작은 돌
큰 돌이 작은 돌을 쳐서 부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까,
마음 흔들린 돌들이 머뭇대며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까.
뜨겁고 아픈 빛 사라지고 등들을 보이며 모두 함께 실어가는 저녁 무렵,
돌 하나가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까.
물 가장자리엔 새들이 황망히 날고 길들은 문득 얹혔다 풀어지고
다음엔 틀림없이 밤이 되는 그런 시각에
아무 곳에도 매달리지 않고 돌 하나가 남몰래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까.

황동규